

9월의 기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나니라 <하박국 2장 14절>

- 1. 2019년 기해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6. 한일 관계의 갈등이 주님의 뜻 가운데 원만하게 해결되고 두 나라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아멘 -

DCEM 성회안내

2019년 9월 4일, 5일 대만의 신띠엔 심파오 교회에서 개최되는 축복성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증거하실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김태승,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태원내과의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타나는 기적

생명의 바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데 성령 하나님 속에 생명의 능력이 가득 출렁거리고 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에는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라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박을순 권사님은 2008년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하여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2013년에는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수포가 몸과 팔다리에 퍼져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오 증복음과 삼중축복을 주셨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는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 증복음과 삼중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나누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실 때 그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생기를 받아들여 살아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ugust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성령 충만 축복성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4차원의 영성 전해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 목사가 8월 1일 청평에 위치한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열린 성령 충만 축복성회의 강사로 초청되어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방학과 휴가를 맞아 영적 재충전을 위해 기도원을 찾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기 목사가 등단하자 성도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로 환영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강조한 조용기 목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청산 받고 용서를 받는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힘과 위로의 원천이 샘솟는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성을 활용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며 "늘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신다. 지금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할 때 그 말대로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조용기 목사는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길 바란다.

다. 금식은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씀을 선포한 뒤 조용기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신유기도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했다. 이어 성도들은 주여 삼창을 외치며 소망과 비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오는 9월 4일과 5일에는 대만 신띠엔 심파오 교회(장마오송 목사, 장웨이인 담임목사)에서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만 성회를 통해 현지 대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길이 대만 전역에 퍼져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18-21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신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죄로 붙잡으면 이 세상을 마귀의 지배하에 묶어 놓고 무제한적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탐욕을 무기로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시고 사탄들이 지고 있는 마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내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21)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잘됨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짐을 청산해야,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성회를 했을 때, 매일 저녁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어떤 부인이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신도인 당신이 어떻게 나를 만나러 왔습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다짜고짜 손을 내밀면서 저에게 손금을 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성회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내 운명을 좀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손금으로는 운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손금보다 위대한 신 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성회에서 그분께 대하여 설교하고 있으니,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시면 그러로 찾아오십시오.”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짐을 벗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방법은 하나,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짐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 11:29)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노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만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결코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끌어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깨어진 사람, 잘 길들임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성을 갖춘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당 가기 위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명하셨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되 흠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흠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죄라는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약점으로 잡고, 인간은 영원히 죽어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느냐?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을 넣어 삶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탐심의 근본입니다. 고로 인간에게 탐욕을 한량없이 퍼부어 인간 가운데 분쟁과 싸움이 끊임 없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은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면 삶의 만족이나 행복이 없고 결국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탐심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끊임없는 분쟁과 미움을 만들어 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범죄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후 세력인 마귀를 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무거운 짐을 상속받아 벼룩처럼 고생하고 사는 후손들을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2.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2년 나이지리아 성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라고스시 프레이어 시티 광장에서 열렸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2002 나이지리아대성회’에 2002년 8월 9일과 10일 이틀간 무려 2백여만 명이 참석했다. 현지 기독교 집회 사상 최대 인원을 기록했던 성회 참석자들은 올루세군 대통령 초청으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에 눈물을 흘리며 나이지리아가 축복과 은혜의 땅으로 변화하도록 간구했다.

조용기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이지리아의 희망이며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성회에서는 이틀간 10만여명 이상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며 각종 암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기적을 증거했다. 또 성회 참석자들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성회 장소에서 아예 잠을 자며 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성회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부인이 직접 참석해 조목사의 메시지를 들었으며 “한국을 방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계감리교협의회 의장이자 이번 집회 대회장인 선데이 마방 감독도 조목사와 환담했다. 마방 감독은 “영적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해준 것에 감사하며 나이지리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루세군 대통령도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자국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나이지리아를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조목사를 초청했다고 밝히고 한국의 성도들도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바랐다.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4년 몽골 성회”



실로 엄청난 성회였다. 2004년 9월 4일과 5일 개최되었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몽골 추수 2004’ 성회는 몽골의 기독교 복음화를 200% 끌어올린 성회로 기록되었다. 몽골의 전통 축제인 나담축제 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로 몰려들었으며 성회장소에는 이틀에 걸쳐 6만여 명이라는 인원이 참석했다. 마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재현된 듯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던 당시 성회는 3만여 명에 달하는 몽골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치료받았다며 간증했다.

실날 같은 희망을 품고 중앙정기장을 찾은 한 몽골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농약으로 자라온 자신의 아이가 조용기 목사의 치유 기도 후 고침 받게 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할렐루야’를 연거푸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성령의 치유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거동조차 하기 힘든 청년은 조용기 목사가 울란바타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

을 설득하여 자신을 들것에 실어 성회 장소로 옮겨 달라고 했고, 그의 이러한 믿음은 곧 치유 받고 새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성회에는 귀머거리가 고침 받았으며 휠체어를 끌고 온 사람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성회 후 조용기 목사는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대통령 궁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조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심장병 무료 수술 등을 소개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한 몽골인들을 도울 것을 약속했다. 바가반디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조용기 목사의 방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회 기간 동안 의료진을 팀 별로 구성해 몽골인들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